

특집 제30회 국민생활체육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대회



제30회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대회 참석자들이 시축을 하고 있다.

화요(30대) · 맥우(40대) · 현내(50대) 우승

제30회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대회 ... MVP 30대 화요 권창용 · 40대 맥우 박길연 · 50대 현내 강명종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거진공설운동장과 현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국민생활체육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대회에서 거진읍 화요(30대), 거진읍 맥우(40대), 현내면 현내FC(50대) 등 3개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국민생활체육 고성군 축구연합회(회장 윤승근)가 주최·주관하고 고성군체육회와 고성군생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30여개 팀 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과 팀의 명예를 걸고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였다.

윤승근 회장은 대회사에서 “축구 동호인 모두가 겨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투지 넘치는 경기 멋진 승부를 펼쳐 주길 바란다”며 “5개 읍면별로 구성된 각 클럽 동호인들이 흘린 소중한 땀의 결실로 매년 고성군에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승부욕보다는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승화 시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고성군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대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각 연령별 경기결과 30대 장년부에서는 거진읍 화요가 토성면 천우를 2대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준우승은 토성면 천우, 공동 3위는 간성을 한마음과 죽왕면 죽왕FC이 차지했다.

40대 중년부에서는 거진읍 맥우가 토성면 천우를 4대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토성면 천우, 공동 3위는 거진읍 청송과 거진읍 일요가 차지했다.

50대 노장부에서는 현내면 현

내FC가 거진읍 일요를 1대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거진읍 일요, 공동 3위는 거진읍 청송과 간성을 수성이 차지했다.

개인 시상식 MVP에는 30대 화요 권창용 선수가, 40대 맥우 박길연 선수가, 50대 현내 강명종 선수가 수상했다.

또 모범 심판상은 김관석 심판이, 모범 경기위원상은 최진선 위원이 수상했다.

단체부문 시상에서는 입장상 현내, 페어플레이상 죽왕이 수상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각 연령대별 우승팀에게 상금 30만원 준우승팀에게 상금 20만원, 공동3위팀에게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박승근 기자



30대 우승을 차지한 거진읍 화요팀이 홍순홍 고성군생활체육회장, 윤승근 고성군축구연합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0대 우승을 차지한 거진읍 맥우팀.



50대 우승을 차지한 현내면 현내FC.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6]

독립운동가 천성환(千成煥)

1917년 6월 22일 ~ 1954년 1월 27일

1938년 6월 26일~1939년 4월까지 고성군 고성면 울대리(栗埜里)에서 김종희(金宗熙)·황동현(黃東淵, 簡易學校講師) 등과 함께 일제의 한민족 말살정책에 대항하여 독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한글의 보급이 급선무라고 판단,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고취할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또 담임하고 있던 고성남공

립소학교(高城南公立小學校) 학생 70여명에게 “조선어는 조선인의 생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1주일에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선어 교육시간을 4~5시간으로 임의 배정하고 일인화(日人化) 교육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1939년 3월 일경에 체포되었다.

1940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

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9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出典: △判決文(1940.9.24 京城覆審法院) △독립운동사 자료집(國家報勳處) 12권 pp1115~1116 △朝鮮日報(1939.12.16일자)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9卷, 國家報勳處, 1991年, p.477.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